

‘새로운 70년’ 조합원에게 물었습니다

창간 70주년 1년 앞두고 편집국 조합원 35명 설문조사

조합원 97% “최근 5년간 본지 영향력 축소됐다”

77% “영향력 많이 축소됐다”... 91% 신뢰·공정성도 악화

영향력 확대·경영 개선에 필요한 것은 인력 충원·처우 개선·투자 확대

광주일보 노동조합 조합원 10명 중 9명꼴로 최근 5년간 광주일보의 영향력이 많이 축소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 공정성 및 신뢰도 역시 같은 기간 악화됐다고 느끼는 조합원이 절대 다수(91%)였으며, 매체 영향력과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해선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경영진의 투자를 통한 수익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광주일보 노조는 내년 창사 70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30~31일 이틀에 걸쳐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편집국 노

조원 36명 가운데 35명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한 익명 응답으로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에서 조합원 절대다수는 최근 5년간 광주일보가 매체 영향력과 공정성, 신뢰도에서 모두 악화됐다고 답했다. 광주일보 매체 영향력이 지난 5년간 어떤 추이를 보였느냐는 질문에 참여자 35명 중 34명(97%)이 ‘축소됐다’는 선택지를 택했다. 27명(77%)이 많이 축소됐다, 7명(20%)은 약간 축소됐다는 답을 택했다. ‘많이 확대됐다’라고 응답한

조합원도 1명 있었다.

같은 기간 매체(보도)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32명(91%)이 악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이 악화됐다’는 답지를 택한 조합원이 18명(51%), ‘조금 악화됐다’고 한 이가 14명(40%)이었다. 최근 5년간 광주일보 보도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큰 변화가 없다’고 답한 조합원도 3명(8%) 있었다.

광주일보 매체 영향력을 키우고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복수 응답 가능)고 묻자, 27명이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선택했다.

경영진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회사 수익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장기 발전 전략 수립·추진을 택한 응답자도 각각 17명, 11명이었다.

편집권 독립이 매체 영향력 확대와 경영 상황 개선에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조합원도 9명 있었다.